

## “지시 따른 군 관계자들 전혀 잘못 없어”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군 병력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으며, 군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인 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에서 계엄령 선포 이유에 대해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관련,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10시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 이뤄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관련 기사 2면

아울러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군 관계자들의 선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인 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을 향해 “엄중한

안보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번 담화는 주요 방송에서 오전 9시42분경 시작해 10시11분경까지 약 29분에 걸쳐 중계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난 7일에도 대국민담화를 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이날 재가했다. 법제처로 이송된 안건들 가운데 법률안은 국회로 넘어가고, 시행령은 통상 3~4일 뒤 공포된다. 이주형 기자



공군39비행단 KF-16 전투기가 11일 중원기지에서 전개된 ‘2024-7차 쌍매훈련’ 중 연합 실무장 폭격을 위해 출격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이날 사격에서 임무를 나눠 수행하며 GBU-12 공대지 유도폭탄을 투하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양동욱 기자

## 한미 공군, 쌍매훈련 전개 연합작전 능력 향상

39비 159대대 - 미 8전비 80대대 방어제공·실무장 폭격 등 집중훈련

한미 공군이 긴밀한 공조로 적의 어떠한 군 사도발에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일

까지 중원기지에서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하고 있다. ▶관련 기사 4~5면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 대대급 부대가 함께 비행하며 연합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열린다. 한미 공군이 전투조종사 기량을 연마하고 우호를 증진하고자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39비행단(39비) 159비행대대와 미 공군8전투비행단 80비행대대가 참가했다.

전투기는 유사기종인 KF-16과 F-16이 투입됐다. 한미 공군은 방어제공(DCA), 근접항공지원(CAS), 실무장 폭격 등을 집중훈련 중이다.

이현철(대령) 39비 항공작전전대장은 “한미 공군이 같이 임무를 수행하며 하나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다”며 “쌍매훈련을 통해 한미는 ‘원팀(One-Team)’으로서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